

데스크시각



장필수 부국장-제2사회부장

얼마 전 목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관광거점도시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를 선정해 세계 수준의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수도권에 치우친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방 확산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목표를 비롯해 부산, 전주, 강릉, 안동 등 거점별로 5개 도시가 선정됐는데 이들 도시에는 5년간 국비를 포함해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에 묻혔지만 목포는 물론 지역 관광업계를 들쭉이게 할 만한 낭보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해부터 전남 서남권 관광의 핵으로 뜨고 있는 목포가 이제는 '관광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서남권 관광의 메카로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다는 점에서 큰

광주·전남은 왜 딴 주머니 차려 하는가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전남 관광은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이 주도해왔다. 여수는 국내 최대 관광지로 2018년 정점을 찍었지만 여전히 '핫한' 여행지이고, 순천은 순천만정원이란 보석으로 인해 꾸준히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전남을 찾는 연간 5000만 명의 관광객 가운데 2000만 명이 여수·순천에 집중돼 있다.

관광산업 상생 방안 찾아야

하지만 지난해 신안 천사대교 개통과 국내 최장의 목포 해상케이블카 운영 등으로 전남 서남권으로 관광의 추가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목포만 보더라도 관광 인프라 구축에 근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과 아울러 면서 세월호 악몽에서 벗어나고 있다. 신안도 천사대교로 연결된 자은·암태·팔금·안좌도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호재가 넘치는 전남과 달리 광주는 관

광객들을 유인할 만한 재료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 주상절리나 아시아문화전당 등이 있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볼 만한 관광지가 드물고 5·18민주화운동 등 다크 투어리즘 같은 콘텐츠도 아직 상품화가 덜 된 것 같다. 이 때문에 광주는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관광객 수가 적다. 지난해 광주를 찾은 관광객은 전남에 비해 고작 7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관광 호재가 넘치는 전남과 관광도시로 의인받는 광주의 현실을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 현장을 뛰는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전남과 박람회 등 대형 이벤트 및 소규모 장점이 있는 광주가 손을 잡으면 된다고 말한다. 광주와 전남을 잇는 연계 관광 상품만 내놓더라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광주와 전남이 관광재단을 따로 만들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웅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취임 초기 공동 관광기구 설립을 약속했지만 결국 별도로 관광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공동 관광재단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광

주시와 전남도는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관광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인 관광재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생활 문화권이 같고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금방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시·도가 따로 관광재단을 설립하는 속내가 조직과 인사권을 상대편에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광주·전남연구원원 전래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시·도는 따로 운영하던 연구원을 광주·전남 상생 과제 1호로 통합해 운영한 이후 인사와 조직 운영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재단 따로 설립은 공멸의 길

그러나 마찰을 빚는 것보다는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지분 100%를 갖는 기관을 갖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각기 딴 주머니를 차기로 한 것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지역민들은 혈세 낭비 못지않게 관광 사실에 따른 관광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별도 관광재단 설립 중단이 늦었다면 컨트를 타워라도 통합하는 것이 광주·전남 관광을 살리는 길이다.

社說

광주의 장밋빛 미래 잿빛으로 변하지 않도록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 보이콧'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광주의 장밋빛 미래가 잿빛 미래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사이 주변 약재까지 겹치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생산 예정인 소형차 시장도 침체되는 등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2019년 사회조사에서 광주시민 3명 중 1명(31.4%·만 15세 이상 광주시민 9156명 대상)이 광주시의 최우선 추진 사업으로 선택했을 정도로 시민의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노사 상생이 핵심인 이 사업은 노동계와 사업 주체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측이 최근 이사회를 통해 노동계와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지만 노동계는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원·하청 체제 개혁, 노사 책임경영 구현 등 4대 의제 이행을 촉구하며 대화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4대의 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자 임금 2배 내에서 임원진 임금 책정, 현대차 출신 이사 경질 등 구체적 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 각종 중재 노력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노동계와 사업주가 서로의 주장만 강조하기보다는 대화의 문을 늘 열어 놓고, '윈-윈'할 수 있는 협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은 광주와 대한민국의 발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노사 협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국내 완성차 산업의 미래는 없다. 서로 한 발짝씩 양보를 촉구한다.

문화로 부활하는 5·18 전국화 기폭제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월 광주의 정신과 역사를 재조명하는 문화 행사와 문화 콘텐츠 상품들이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재)세종문화회관은 오는 5월 16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5·18 40주년 기념음악회 '오월, 부활하다'를 개최한다. 연주곡은 5악장의 합창 부분 가사가 광주의 그날을 연상시키는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과 민중가 '그날이 오면'이다. 이번 음악회의 특징은 전국에서 온라인 오디오션을 거쳐 선발된 518명의 음악 애호가들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오케스트라단 140여 명, 합창단 370여 명 등을 3월 9일까지 모집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5·18 30주년 기념으로 광주시민합창단과 '부활'을 연주했던 구자범 전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의 제안으로 성사됐는데, 부산과 광주의 시립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방안도 추진된다.

5·18기념재단은 이번엔 새로운 5·18 창작극 두 편을 선보인다. 한 편은 광주 민중항쟁을 민중가요 중심으로 풀어 나가는 극단 토박이의 '나와라 오바'이며 또 한 편은 들불야학과 투사회보가 탄생한 광천시민아파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극단 신명의 '무등 세상'이다. 한편 장영주 감독이 제작한 '5·18 인터페터 스토리'라는 다큐 영화는 최근 일본에서 모든 좌석이 매진된 가운데 상영됐다고 한다. 이밖에 80년 5월 나눔의 대동 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도 다양하게 상품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문화 상품은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며 5·18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4·15 총선에 가려 대대적으로 가려야 할 5·18 40주년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이들 콘텐츠가 5·18 전국화·세계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은펜칼럼

치매 요양 마을과 케어팜의 꿈을 꾸다



류동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어 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소박한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꿈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살다가 죽어갈 때까지는 그렇게도 노력 여하에 따라 해 볼 수 있지만, 인생 말년에 치매라는 병을 만나면 제아무리 자존감 높든 사람들도 힘든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가족들도 고통을 받게 된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치매 요양 병원에 가게 되는데, 답답한 생활로 인생 마무리를 간혀서 지내고 싶은 사람

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네델란드 호그벡(Hogeweyk) 치매 마을 사례를 보면 치매가 걸린다 하더라도 꿈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호그벡마을은 치매 환자들이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곳이다. 요양 시설 내 슈퍼에서 장을 보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소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일상생활을 즐긴다. 또 채소도 가꾸고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며, 미술 활동도 하고, 자유롭게 산책을 한다. 가장 큰 특징은 이곳에 있는 요양 복지사, 간호사, 의사 선생님, 자원 봉사자들이 모두 하얀 가운을 입지 않고 역할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 점이다. 이들은 슈퍼마켓의 직원이 되고, 카페 점원이 되고, 채소 가꾸는 일꾼이 되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되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치매 환자를 보살핀다. 치매 환자들은 일상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인생 말년의 시간을 보낸다. 4500여 평의 부지에 200여 명의 치매 노인들을 250여 명의 의료진과 자원 봉사자들이 보살핀다. 프랑스에도 최근에 이런 치매 마을이 생겼다고 한다.

필자는 이 사례를 보면서 가슴이 울먹해지는 감동을 느낀다. 사람이 사람다운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기를 하면서 따뜻하게 보살피는 요양 복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치매 요양 마을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꿈꾼다. 치매에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마을로 갈 수만 있다면 그리 두렵지 않을 것 같다. 한편으로 네델란드에서는 돌봄과 농사를 접목시킨 케어팜(Care farm·치유농장)이 이미 1000개를 넘어서면서, 복지와 농가 소득 창출의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사회적 농장의 개념으로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다. 생명을 기르는 농업의 치유의 기능을 치매 노인, 알콜 중독 성인, 자폐 아동, 주의력 집중 장애 아동, 우울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농장에서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농장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가족을 기르며, 더 나아가 경제 활동지도 하는 프로그램이다. 숙박도 있고 출퇴근 프로그램도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폐쇄된 곳에 갇혀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가족을 기르면서 자연과 소통하면서 활동을 한다

는 것이다. 채소를 가꾸고, 토끼와 닭에게 모이를 주면서 햇살을 받으며 하루하루 자연의 변화에 감동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신적 질병들이 치유되고, 약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필자는 작년에 도시 농업 박람회 에서 주의력 집중 장애로 힘들었던 소년 이 농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놀라게 변해 자신감 있게 청중들에게 직접 발표하는 사례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다. 소년은 장화를 신고, 리어카를 끌며 삽질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찾고, 자신감이 충만한 모습을 보였다. 한 손 가득 수확한 토마토를 들고서 함박웃음을 짓고, 농사가 재미있다고 하는 그 소년은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다.

이런 치매 요양 마을과 케어팜과 같은 모델들은 도시 근교 농촌이나 광우와 전남의 상생 사업으로, 전남 지역의 넓은 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하고 대도시인 광주 지역의 많은 소비자를 연결하여 협력 모델로 추진해도 가능하리라 본다. 이번 총선에서도 총선 후보자들 사이에 이런 혁신적인 감동을 주는 창조적인 복지 모델들이 공약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기고

원전을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자



조성연 무진기연 대표이사

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자국 이외의 원전에 설계 인증을 준 것은 이것이 최초이며, 거기에 우리는 이미 2017년 10월 유럽 사업자 요구건(EUR, European Utility Requirements) 인증까지 획득,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안전한 원전으로 공인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기한 APR-1400 원전은 기존 한국형 원전인 OPR-1000 노형을 개량하여 개발한 차세대형 원전으로서, 2009년 UAE에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전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수출에 성공한 사례가 되었고, 원전 선진국들이 개발한 3세대 원전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강점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한 안전 공학을 적용하여 화재, 홍수, 지진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한 차원 강화시켜 안전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원전은 정밀 지질 조사를 통해 안전한 지역에 부지를 정하고 진동이 적은 암반 위에 건설하는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문제가 되었던 쓰나미에 대비해 지리적으로 높은 위치를 선택하고 해안 방벽을 높게 설치하는 등 이외

에도 다양한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원전의 안전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빛원전이 지역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불안감에 이런저런 얘기가 걸려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그 첫째 이유요, 원전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가 안전에 대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실에 기반하거나 현재의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채 반대 여론을 전파하는 경우가 그 둘째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영광의 한빛원전에는 15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흥농에 거주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1600여 명에 달하는 협력 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총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원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전이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면 그 종사자들은 어떻게 가족들까지 함께 그곳에서 일하며 거주할 수 있겠는가? 원전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확신을 가져야만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업계의 과오도 없지 않았다. 정보 공개나 대국민 소통에 미온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여러 차례 언론에 이

슈가 되었던 일부 오점들이 존재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 들어 그들도 달라졌고,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공개 및 소통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발전소가 돌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예전과는 세상이 달라진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불모서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에 대해 과학적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질타를 가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환경 문제나 혹은 원전과 연관된 일반적인 의구심에 찬 이야기 저 원전 근무자들이 있는데 과연 필요한 것일까? 우리는 좀 더 과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야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원전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에너지 지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無等鼓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बंध 마케팅'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하면서 지나치게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이력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과거 각종 선거에서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현직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경력을 앞세운 후보들이 많았다. 특히 광우와 전남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은 최고의 후보 경력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 마케팅'은 전·현직 대통령과의 인연만을 강조해 후보자의 능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는 경력을 앞세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거사무소 외벽에도 예비후보들이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어 놓은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 등 유명 정치인들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이름을 파는선거운동도 하고 있어서 유권자

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청와대 출신만 전국적으로 70명에 달한다고 한다. 광우와 전남에도 상당수가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태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출마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위한다면 자신들의 입신양명(立身揚名)보다는 어려운 정치·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고군분투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다. 1년도 채 안되는 청와대 경력을 앞세우거나 대통령 선거 때면 전국적으로 수백 명씩 인선을 하는 각종 특보 및 선거대책 위원 직책을 이용해 대통령 이름만 파는 '이름 팔이'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다행히 민주당이 이번 공천 적합도(당선 가능성) 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예비 후보들은 자신들의 실력과 역량,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공약 경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우기 11(광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